



따라쟁이

대현초 4-4 최다운

바스락 낙엽을 밟으며 산길을 걷는다.
할머니가 하나 주우면 나도 하나 줍는다.
어느새 도토리 한 바구니

우두두두둑 빨간 다라이에 도토리 넣는다.
할머니가 하나 씻으면 나도 하나 씻는다.
어느새 도토리 한 바구니

도각도각 도토리 껍질 깐다.
할머니가 하나 까면 나도 하나 깐다.
어느새 도토리 한 바구니

불 위에 솥 올려
할머니가 한 번 저으면 나도 한 번 젓는다.
어느새 도토리묵 한 접시

할머니와 나 나란히 앉아 도토리묵 한 숟가락

